



목포주안교회 설립 35주년기념 “성도들 축제의 장”

설립 3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대한민국 땅 끝 항구도시 목포 청호(북항)에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는 교회이다. 항구도시에 우뚝 선 목포주안교회(담임 모상련 목사)는 올해로 설립된 지 35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0일 주일예배에 2200여 명의 성도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35주년을 맞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목포주안교회 성도들과 모상련 목사는 선교하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대형교회의 비전을 갖고 힘쓰고 있기에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다.

35주년을 맞은 모상련 목사는 이날 출 40:34~38절을 중심으로 “여호와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날의 이르기까지 교회가 성장되고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



혜라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다는 고백과 동시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했다.

목포주안교회 모상련 목사는 1983년 6월 13일에 설립했으며, 1984년, 1989년, 2000년 등 세 번에 걸쳐 아름다운성전건축을 해온 결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

광을 돌려드리는 중형교회로 성장을 했다. 그런가하면 지역주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남악주안교회, 용해주안교회, 배트남호치민주안교회, 캄보디아주안교회, 태국차양마이주안교회 등을 설립하는 등 국내선교와 세계선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교회이다.

담임 모상련 목사는 교회를 설립

한 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한결같은 모토와 세가지 비전을 목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강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전파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복지, 그리고 다음세대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달려가며 생명을 넘치는 교회이다.

1. 주안교회는 복음전파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 배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아프리카 등에 단독 교사를 파송했으며, 10여 개국 20여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되는...

칼럼 박완근 목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 그리고 유족들과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추모객들이 기념식을 하던 현충문 앞 잔디광장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가 되자 썰렁하게 변했다. 기념식을 위해 설치했던 구조물들을 해체하는 인부들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무언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 허전함과 쓸쓸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함부로 단정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금년 행사도 일년에 한번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우리 할일은 다 했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는 것은 아

닐까? 하는 쓸데없는 노파심 때문일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과 느낌이 말 그대로 노파심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다. 행여라도 우리가 그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년 이맘 때 똑같은 맘으로 똑같은 행사를 위해 모여드는 의미 없는 행위가 반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명의 선교사와 협력선교를 펼쳐나가고 있다. 1. 기독교TV와 극동방송을 통한 방송선교는 매주 전도대회에서 실시하는 노방전도와 다가호호전도, 병원전도 등으로 지역과 국내의 선교에도 노력하고 있다.

2. 사회복지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각각각층에 맞추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주민들에게 실천하고 있다. 2002년 사단법인 주안비전복지센터를 설립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주안경노대학은 6월 현재 500여명의 노인들이 내세를 준비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복사, 전화, 팩스, 화상실, 휴대폰 충전서비스, 여름 무더위쉼터와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3. 다음세대 준비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교회이다.

본 교회는 다음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선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장년부의 정착과 양육을 돕기 위해 새가족을 위한 “스타트코스” 성경대학과 성지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베트남 예배, 영어예배를 드리고 있다. 게다가 차세대 교회 음악리더와 영상 음향 등의 헌신자를 양성하는 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목포주안교회는 행복한 교회, 친절한 교회, 따뜻한 교회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아울러 매년 부활절, 성탄절이면 성도들은 찬양과 율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매년 6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는 전교인 친교 한마당을 열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주안교회는 멀티사이트 교회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전도와 양육을 실천하며 예배하는 교회라며 소문이 났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포주안교회의 목표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달려가는 주안교회로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모상련

http://www.mokpojuan.com

설립 35주년 기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밤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겨울 7:00)
새벽예배 오전 5:00

설립 35주년 기념

부목사: 모정선, 박민수, 성삼수, 모성운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안윤기, 김진희, 김미경
협동목사: 장창화(은퇴)
전도사: 전영옥, 추정희, 송선택, 뎀(베트남신학교 유학)
시무장로: 송영문, 천은상, 정순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모상후, 송현중
협동장로: 이병화
은퇴장로: 고재현, 원복희, 장광호

성명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성명



한국교회총연합은 남북 정상외교관점 선언에 이어 6월 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합의의 실현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공존으로 가는 길에 성공적으로 들어섰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공동성명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회담이 궁극적으로 분단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가져올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민족의 궁극적 소망인 평화통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남과 북이 더 이상 적대적으로 위협하지 않고, 공존하며, 교류하고 협력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남북 당국자들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남북문제가 민족의 장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여 남북갈등의 요소를 만들지 말고, 보다 성실하고 숭고한 자세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남북의 평화정착과 교류확대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상황변화에 접근하면서 각각 처한 자리에서 민족화해와 평화공존, 그리고 통일을 향해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민족의 평화와 공존,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화해와 교류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보다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교류와 협력의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함으로써 평화정착과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 모두가 자유와 안정과 평화의 기틀위에서 보다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정계현 최기학전명구이영훈목사

성명서

한기총,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개최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앞으로 북미 혹은 남북 정상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계속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보여주었고, 회담 내용에 따른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이행이 회담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회담이 북미간의 합의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합의로 여기고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폭격' 혹은 '전쟁'과 같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들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남북간 북미간 정상회담은 실로 엄청난 변화이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싸여 마치 금방이라도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이 될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상회담은 이전 날의 간극을 메워가는 출발점이자 시작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충분한 시간과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질적인 모습도 화합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남북 그리고 북미간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또한 한국교회와 전 성도들과 함께 한반도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며 북한 전역에서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8년 6월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논평

한기연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평



북미 정상회담은 68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적으로 싸웠던 당사국의 정상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됐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 합의문에 미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아갈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과, 모든 합의가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흐른 것을 보면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과 실망도 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합의는 북미간의 향후 정상적인 관계개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보여줄 수 있겠으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에는 미흡하며,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감을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북미 정상외교관점 선언과 합의문을 보면서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

한 여정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안다. 북미정상회담 한번으로 긴 세월 서로에게 쌓인 불신을 일거에 걷어내고 신뢰의 시대를 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국제사회 앞에 약속하고도 스스로 그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 북미회담에서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것 없이 포괄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보며 북핵 협상에서 실패했던 과거의 전철을 또 다시 밟게 되지 않을까 또다시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것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합의문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북미회담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보다 냉철하게 주시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 북·미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닌 이상 모든 이슈에 함몰되어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북미회담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그 성과가 한반도 평화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도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중재역할을 했지만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다.

2018.6.1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동성 목사

한기총 청소년위원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 추진키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조홍식 목사)는 12일(화) 오전 11시 제29-1차 회의를 열고, 한국교회 다음세대인 청소년

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교육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조홍식 위원장은 "청소년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기관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위원회가 되

었으면 한다"면서 "미래를 책임지는 사역을 감당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 했으면 한다"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청소년 복음화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부위원장에 어승우 목사(기감연합)와 정창모 목사(예장예장)를, 서기에 박명균 목사(대한보수)를 각각 선임했다.

이와 함께 황지영(벨로체 재무이사), 지수용(한국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 박서영 법무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주요 사업으로 회원교단 및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로

한국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무상 임시 설명회 및 교육 세미나'와 벨로체에서 진행하는 '벨로체 성서 체험전을 통한 청소년 선교 후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수용 전문위원은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겠다"면서 "교육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입시설명회 및 교육정책 설명회를 무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 위원장은 또 "한국청소년교육문화원은 1990년 교과부에 등록된 단체로서 청소년 교육문화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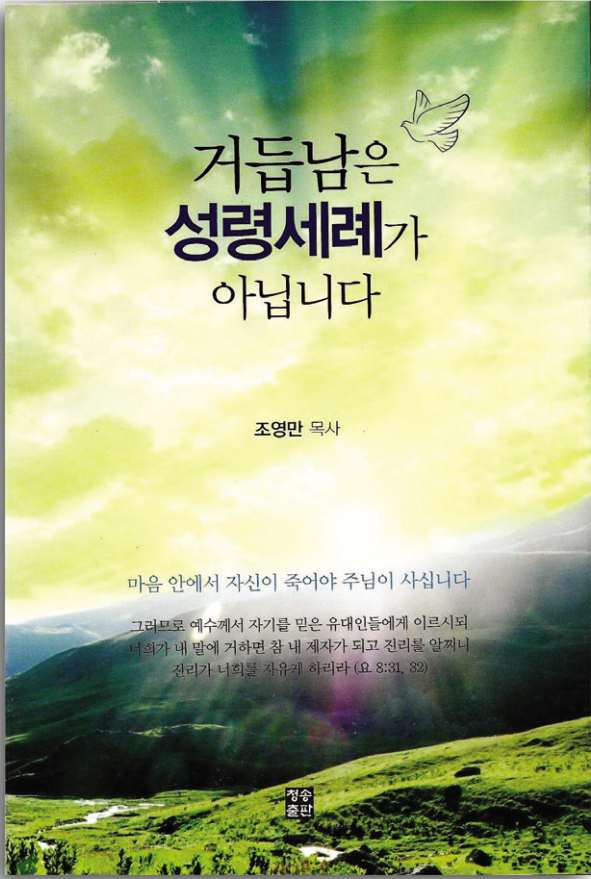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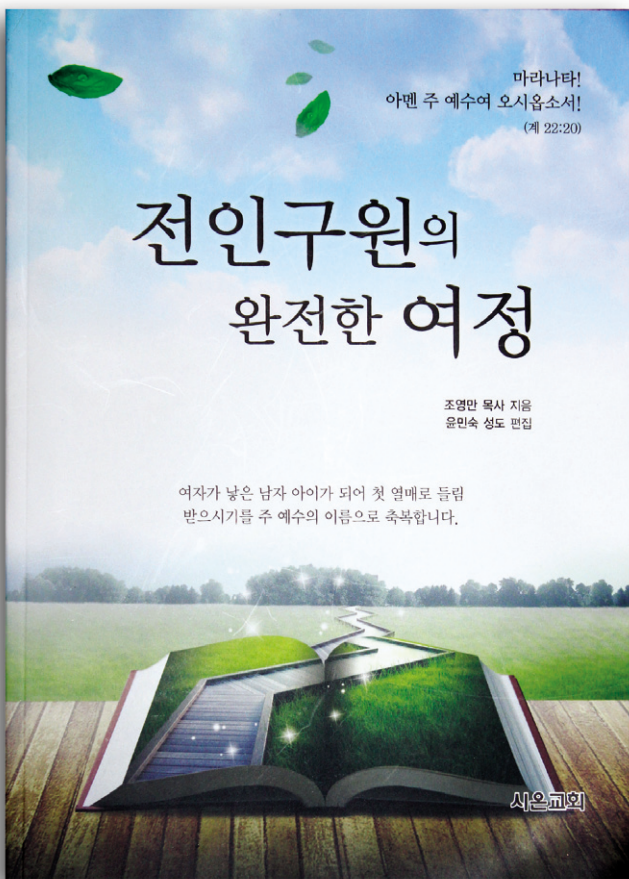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1press@hanmail.net / jntvcpi@naver.com
▶전화 : 전화 :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신간 “전인구원의 완전한 여정”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른 바(거듭남을 누는 비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총해를 건너는 것(거듭남을 요단을 건너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거듭남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어린 아이(거듭남을 장성한 자(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거듭남을 신성한 자들(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중생의 씻음(거듭남을 성령의 새물결 하심(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믿음(거듭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은혜(거듭남을 은혜위에 은혜(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거듭남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너희와 함께 거하심(거듭남을 너희 속에 계시겠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거듭남을 새 마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옷(거듭남을 의의 겹옷(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아브라함이 85세에 벨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거듭남을 99세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거듭남을 제자들이 주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성령세례)라고 같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은총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자 조영만

-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 총회신학교
- 국제신학대학원(M.Div.M.A)
-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인천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 사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무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 CTS 경인방송 운영이사
- 현재 인천신문장로교회 담임목사

책 주문 방법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연락처 : 010-5355-2584
·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 예금주 : 시온교회
· 신한은행 : 110-029-475990
· 책 가격 : 15,000원
· 다음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예배를 http://cafe.daum.net/choym.com

합동보수 목회자부부하계수양회 가져

평안으로 든든히 서는 목회(행9:3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지난 5월 28일(월)~30일(수) 오전까지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도고 토비스콘도에서 2018년도 목회자부부하계수양회로 “평안으로 든든히 서는 목회”(행9:31)라는 주제로 열렸다.

28일 오후 8시 대회준비위원장 강대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총회서기 임상국 목사의 기도와 인도자의 성경봉독(행9:31)을 중심으로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평안으로 든든히 서는 목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회계 승인설 장로가 헌금기도를, 대회준비위원장의 대회선포와 대회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특별기도회는 대회총무 조영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총회부서기 주지광 목사, 2.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대구교회 서기 최철복 목사, 3. 총회와 신학교를 위하여 서경교회 서기 윤희시바 목사, 4. 노회와 지교회의 부흥을 위

하여 한중노회 부노회장 한기장 목사, 5. 수양회와 특별교육을 위하여 호남노회 서기 이동철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이어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종교인소득 신고제도 건보 직장가입자 가능과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규필 총회장은 목회자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가능한지는 종교인 과세 시행 전부터 해석이 분분했다면서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한 이날 종교인소득과 과세에 대

해 JTNTV(<http://jntv.kr>) 동영상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합동보수총회 목회자부부하계수양회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설명회를 갖고, 29일 새벽예배, 노회별 단합대회, 저녁 8시부터 윤석철 경증총회장의 특별교육을 통해 목회활동에 있어 유익한 정보와 은혜로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30일 아침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폐회예배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목회자부부수양회를 마쳤다.

코리아타운 쉼터 반대 5차 집회 열려

월서커뮤니티연합 주최, 3천여 명 참가

한인타운 중심부(682 S Vermont LA)에 들어서는 노숙자 24시간 임시 쉼터 조레안 저지를 위한 제5차 집회가 지난 3일과 7일 코리아타운을 우리의 손으로 지키자는 현수막을 들고 코리아타운 월서길과 버몬트길이 만나는 교차로 일대에서 약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집회는 50여 한인 단체들과 20여 히스패닉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월서커뮤니티연합’ 등이 주최한 가운데 한인들과 타인종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평화스럽게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는 각 단체를 알리는 T셔츠 팔플릿, 모자, 플래카드, 자유의견발표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자발적 집회동참 목적과 쉼터 저지에 대한 목소리를 질서정

연한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소리 높여 외쳤다. 시위 참가자들은 한인 타운 주민의 여론과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 강행된 쉼터 설치안을 성토했으며,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허브 웨스 시장의 소환, 임시 쉼터 설치 반대, 타운홀 미팅과 공청회 개최, 한인타운 주민여론 수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서 집회를 주최한 ‘월서커뮤니티연합’의 정찬용 한인커뮤니티번호사협회(KCLA) 회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관계 서류를 살펴본 결과 웨스 시 의장은 한인타운 682 S. 버몬트를 쉼터 부지로 졸속 지정하고 이를 강행



하고 있다. 반드시 임시 쉼터 조레 안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서커뮤니티연합측은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쉼터 조레안 반대 온라인 청원운동(www.change.org)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

현충일 보수단체 대규모집결 “文 규탄, 자유민주주의 수호”

비상국민회의 “목숨과 바꾼 나라서 자유 파괴” “편문점 선언과 남북고위급 회담은 전면 무효” 일파만파, 대한민국 공산화저지 총궐기대회

지난 현충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대회’로 집결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저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애국가를 힘차게 재창했다.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주최 측은 현충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국민대회를 개최한 비상국민회의는 정계원로들로 주축이 된 보수단체이며 애국시민단체다. 이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공동대표로,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았다. 보수애국시민단체는 “대통령 문재인을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온 국민과 헌법에 대한 서약을 위반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대한민국을 짓밟아 왔다”면서 “대통령 문재인이 반 헌법행위와 국가 파괴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따라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 남북 고위급회담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안 제안 또는 국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러

면서 박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야당이나 국회, 언론이 제약을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하고 “국민이 반대할 일이 있으면 해야하며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자리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게다가 탈북민인 강철호 목사는 “오늘 이 현충일인데 이 나라는 우리 선조들이 목숨과 바꾼 나라”라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평가가 공짜로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평가는 결코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선조들의 목숨과 바꾼 나라가 위협받고 있고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집회 측 추산 10만여 명이 모인 집회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파괴되는 자유대한을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광화문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를 지나 교보빌딩으로 돌아왔다.

한편 이날 보수단체인 ‘일파만



파’ 측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 공산화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나라살리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불순한 개헌 시도를 지켜봤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동맹국보다 친중, 친북을 앞세우고 있다”라며 “안보에 절대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에는 주최·경찰측 추산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 이후 안국동 로터리를 거쳐 청와대 100m 앞인 126 맨션 앞까지 진행했으며, 다시 동화면세점 앞으로 회귀했다. 이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수단체인 일파만파측이 해산하는 시간까지 48개 중대 3500여명의 경력이 배치되었다.

김요한 기자

한교총 대표회장단, 법인설립위한 총회 7월 20일 개최기로

본회 대표회장단 회의가 6월 11일(월) 12:30에 열려 법인설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7월 20일 개최기로 하는 등 현안들을 처리했다.

대표회장 전계현, 최기학, 이영훈 목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이전 회의 결의대로 사단법인 설립을 서두르기로 하고, 오는 7월 20일(금) 10시 100주년기념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기로 했다. 특히 현 정권 상 20명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 사 정수를 맞추기 위해 회원교단에 의뢰한 법인이사 추천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는 것과 함께, 예정합동, 예정통합, 기간, 기하성여의도, 예정대신측에는 교단별 각 2인씩 추천토록 요청하며, 추천에 따른 이사분담금도 추가하여 납입토록 요청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 교단에는 6월 말까지 이사추천과 분담금 완납을 요청하도록 하고, 6월말까지 접수된 인원을 기준으로 설립 이사 정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결과 보고와 전문위원 위촉 승인

교류협력위원회가 주최한 교단개항 촉구대회가 5월 24일 완료되었음을, 평화통일위원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이 6월 28일(목) 10:00~12:30,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되는 건교, 협력단체와의 협약식 진행 결과로 ①한국교회총사단 ②성시화운동본부 ③한국교회 공공정책협의회의와 협약식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고, 실무협의를 끝낸 ④평통연대와의 협약식은 이영훈 대표회장, ⑤월드비전과의 협약식은 전계현 대표회장, ⑥기아대책기구와의 협약식은 최기학 대표회장이 각각 맡아 일정을 조정하여 진행토록 가결했다.

또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전문위원 위촉 보고를 승인하였는데, 평화통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윤은주 박사(평통연대 사무총장), 유영식 박사(한반도 통일선교 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정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상열 목사(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총무),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이말테 목사(루터대교수), 한정에 교수(협성대 명예),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안종숙(한국기독교성령역사 책임연구원), 김철영 목사(기공협 사무총장)이다.

한편, 지리산 노고단 선교사 수양관 관련 지방 검찰청 탄원서 제출을 승인하고,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성명 혹은 논평, 서울 모 교회의 담임목사 자격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 발표 건 등은 대변인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여 회담하고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 7월에 진행되는 한국교회 귀어축제 반대집회는 교단 연합 집회임으로 각 교단별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했다.

한편, 7월 20일 임시총회에 맞춰 조찬으로 상임회장단회의와 신임총회장 초청 조찬을 가지며, 오찬으로는 본회 설립에 공헌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피종진목사 6월 국내·외성회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 Bless 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4011-7770
F: 02)3411-9111

- | | |
|-------------------------------------|---|
| 1(금) 저녁 | 오산리최자실기봉금식기도원(원장 권경환 목사) ☎(031)947-0091
주최: GoodTV부흥사협의회(대표회장 성관성 목사) |
| 2(토) 오전 | 세계선교연대 포럼(대표 최요한 목사) ☎ 010-3767-0347
장소: 서울 프란스코텔 |
| 3(주) 저녁 | 천안 아가페교회(윤재민 목사) ☎ 010-6352-0691 |
| 4(월) 오전 | 한국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
| 4(월)~ 8(금) | 청평 강남금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 11(월)~13(수) | 광주 제자교회(조홍식 목사) ☎ 010-8477-0191 |
| 16(토)~17(주) |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
| 18(월) 오전 | 한국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
| 제213차 해외성회(213rd Overseas Assembly) | |
| 18(월)~19(화) | 일본(JAPAN) 요가미찌 사관순복음교회(김동수 목사) ☎(90)1270-5127 |
| 20(수)~21(목) | 일본(JAPAN) 아미마키도원(원장 남익순 목사) ☎(90)1270-5127 |
| 25(월) 오후 | 오산리최자실기봉금식기도원(원장 권경환 목사) ☎(031)947-0091 |
| 25(월) 저녁 | 오산 광은기도원(원장 김한배 목사) ☎(031)668-0553
주최: 한국교회영광회(대표회장 성관성 목사) |
| 28(화)~29(금) | 미국(U.S.A) 워싱턴 DC Nyskc Conference '18
주최: Nyskc World Mission(HQ: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 |
| 30(토) 오후 | 광명 동성장교회(이광성 목사) ☎(02)2060-4591 |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18년도 교회표어:

오직 예수 (히 12:2)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담임목사: 허창범

신학박사/교육학박사/행정학전임 총회장

부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공재용, 안종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이창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8:00, 9시 11:00
주일오전: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세례예배: 새벽 6:00
금요예배: 저녁 8:00

관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로 11번인길 47(영무대) 2차 후문 앞, 수원동 옆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에복교회
YPOK PRESBYTERIAN CHURCH

열방부흥선교회의회 총재
지저스타임즈 사장
JTNTV 기성예배 합법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BS TV 칼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934-1232(대)

....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막 11:17)

예/배/시/간

대 예 배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유채부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일아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주일예배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30분	토요일아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 야 기 도 회 매일 오후 10시(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에복교회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 : (02)934-1232

대한예수교장로회
번성교회

2018번성표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번성목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 Min): Park Jeong K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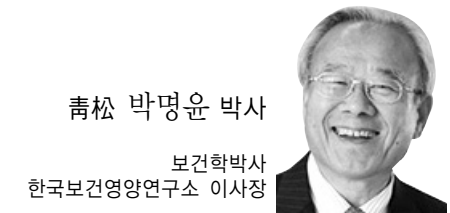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4(갈마동 338-22)

☎교회: 042) 523-3191 FAX: 523-3090

E-mail: pjk2863@hanmail.net

■ 靑松 건강칼럼 (641) 미세먼지 공포와 숲속 아파트

미세먼지, 해결책은?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요즘 신혼부부들의 혼수(婚需) 가전제품 목록에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결혼 성수기인 1분기에는 주요 가전 전체 매출에서 혼수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가전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무선·로봇 청소기, 의류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은 전년 대비 연간 200-300%씩 판매량이 늘었다. 반면에 TV, 냉장고 등은 중저가형을 구입하며 판매량 또한 주춤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예보를 보면서 꼭 미세먼지 상태를 체크하여 ‘나쁜’ 날이면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한다.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이즈음 식목일(植木日)을 맞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이뤄지는 것은 반갑고 절실한 일이다. 지난 4월 5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나무를 심고 환경정화활동도 펼쳐 ‘생명 살리기’ 나무심기 운동을 펼쳤다.

식목일은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1949년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1960년 3월에는 기존의 4월 5일 식목일을 3월 15일 ‘사방(砂防)의 날’로 변경했다가 1961년 다시 4월 5일을 식목일로 변경했다.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됐다.

요즘은 숲과 공원의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 방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에스프레소 1잔 분량에 이른다고 한다. 산림과학원과 트리플래닛이 조사·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4개 숲이 미세먼지를 1년간 364kg을 흡착했다.

최근 지방 주택 경기가 위축됐지만, 공원을 낀 아파트는 분양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즉 공원

이었던 땅을 활용해 ‘숲 속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2016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분양한 경기도 의정부 직동공원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1681가구 모집에 8536명이 신청했다. 이에 의정부에서 전체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된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의 일이어서 화제가 됐다.

먼지 입자의 직경이 10μm(PM10)이면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2.5μm 이하를 초미세먼지로 분류한다. (초)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과 같은 가스물질에서 입자화된 물질이며, 원소 탄소,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늄염, 금속입자, 미네랄 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화력발전소, 대형산업체, 디젤자동차, 유기용제 사용시설, 주유소, 고기구이식당 등이다.

미세먼지를 배출한 중국에 국제법(國際法)적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주의적으로 접근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폐(肺) 깊숙이 침투하여 폐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폐를 손상시킨다. 미세먼지는 호흡기계 감염 외에 심근경색, 뇌졸중, 혈압·심박동수 이상, 급사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미세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건강을 위해 사람은 물론이고 반려견(伴侶犬)도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1군(Group 1) 발암물질로 2013년 10월에 분류하였으며, WHO는 2014년 1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하여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약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관련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한해 2만 명이 조기사망 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규모는 최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보다 높으며, 2016년 환경성감지수(EPI) 공기의 질(質)이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였다. 한편 OECD 2016년도 보고서의 ‘더 나은 삶 지수’ 환경부문의 대기오염부문에서는 38개국 중 38위로 꼴지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피해를 주는 것은 확실하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환경정치학 차원에서 보면 비대칭적(非對稱的) 상황이다. 이에 비대칭적 상황에서 피해를 주는 쪽은 굳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서 한국은 중국을 문제 해결의 장으로 인도해야 한다.

북유럽의 산성(酸性)비 문제는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가 참여하여 해결됐다. 피해국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972년에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산성비 문제를 제기했고, OECD가 주도하고 당사국인 서독,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조사가 시작되었다. 1979년 CLRTAP(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월경(越境)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에 35개국이 조인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그 결과 유럽 각국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배출량을 줄여 산성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미세먼지를 배출한 중국에 국제법(國際法)적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법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 입고 있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국내 조사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20%에서 8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중국과의 환경협력으로 두 나라가 같이 해결해보자는 ‘윈-윈 해결책’이다. 한·중환경협력센터의 발족에 합의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大氣質)을 공동 조사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환경오염이 경제 성장, 삶의 질, 공산당(共產黨) 지도하의 국가 지도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 이에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나 기술 개발을 지원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중국과 환경협력 필요하다. 중국과 협력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 미세먼지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연구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다각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료를 갖고 여러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인 정책이 결실을 맺어야 우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을 꼭 해야 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 6)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7)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質) 관리 등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단 구성, 국회 미세먼지 포럼을 특위 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 韓·中·日 미세먼지 의원 포럼 발족, 미세먼지부담금제 도입, 경유차 및 노후차량 일몰제 도입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 때부터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저감 시민행동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초과 배출 업소에 대한 고발 및 포상(미세먼지 파라치)을 실시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수 실적 지자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황성주 박사의 “3박자 건강” -75-

“정신신체 의학”



황성주 박사
사랑의 클리닉 원장

지금도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날씨만 선선해지면 허리와 무릎, 그리고 손발이 시려워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어머니의 호소에 의학박사인 아들이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냉증이라는 병리학적 실체가 명쾌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미혼 여성에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여성만을 괴롭힌다는 점에서 냉증은 여성의 잔혹한 동거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여성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증명한다고나 할까.

계절에 관계없이 손발 혹은 전신이 항상 차게 느껴지는 냉증은 원인이 다양한만큼 증상도 복합성을 띠게 되어 치료에 있어서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냉증이야말로 “질병”보다는 “인간”을, “증상”보다는 “생활”을 치료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이 병은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잘못 형성된 생활습관, 여성 특유의 생리작용(월경, 출산 등), 불편한 주거환경(불충분한 난방) 등 한 마디로 생활 전반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소극적인 성격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겠다. 이 병을 여성의 총체적인 건강상태를 표시해 주는 간접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도 여기에 기인한다. 원인이야 어지됐던 냉증은 말초혈액순환의 장애에 기인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에 대한 치료로 증상 자체에 집착하거나 단기적 증부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증상완화라는 “결과의 처리”와 아울러 생활양식을 수정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치료에 힘써야 한다. 냉증의 치료는 어차피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의사에게 의존하기보다 오히려 자기자신에게 치료의 책임이 부과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약물치료를 제외한다면 냉증의 예방법이나 치료법은 그 원리가 다르지 않다.

즉, 냉증의 퇴치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된다. 첫째는 목욕을 통한 방법으로 온냉교대법을 권장하고 싶다. 둘째는 운동을 통한 방법으로 말초혈액순환을 크게 증대시키는 부하운동이 적합하다. 셋째는 규칙적이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는 활기찬 삶을 살아야 한다. 다섯째는 화목한 가정생활과 원만한 성생활이다. 여섯째는 주거환경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일이다. 일곱째는 커피 대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인삼차를 생활화한다.

지저스타임즈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애독자 제위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및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이 벌써 창간 13년이 넘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으며,
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이 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서울 노원구 교회매매

대지. 95평 건평. 250평

용도. 1-3층

임대료 월 450만원

4-5층 교회. 교육관

금액. 24억원

대출. 있음

위치. 서울 노원구 하계동

☎ 010-2868-7302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담임목사 김창통



상담목사 박명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한교총 주최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 열어

할렐루야조 예상통합, 임마누엘조 기하성여의도 우승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한 2018 한국교회 목회자 축구대회가 5월 24일 하남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할렐루야조와 임마누엘조로 나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모두 11개 교단에서 참여했다.

할렐루야조는 오전 8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예선경기로 시작된 대회는 예선을 거쳐 6강 4강과 결승 경기로 진행되었으며, 임마누엘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과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폴리그로 승부를 가렸다.

9시 30분 진행된 개회예배는 준비위원장 이재형 목사(예장개혁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진호 목사(기성총무)의 기도와 대표회장 최기학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설교로 진행되었으며, 대회장 민찬기 목사의 대회선언과 삼일회장 정동균 목사(기하성총회장)의 격려사와 선수대표 선거와 시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사렛성결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등 11개 교단에서 참가했다.



할렐루야조에서 우승은 예상통합, 준우승은 기성, 3등은 예상합동이며, 임마누엘조에서 우승은 기하성여의도, 준우승은 예상합신, 3등은 그교협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기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계현 목사 : 저준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중으로써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동역자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참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서은 사랑을 이어가고, 사랑을 잃고 싶지 않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금 번 첫 대회

로 시작한 한교총 목회자 축구대회가 한국교회 목회자를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중으로써 사랑하고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기학 목사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정상회담이 곧 개최됩니다. 한반도가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지대가 되고,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가 평화롭게 교류하는 지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가 한국교회의 선교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교총의 회원교회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그

런 점에서 이번 교단 대항 축구대회를 통하여 각 회원교단 지도자들이 친교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연합하고 동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영훈 목사 : 시편 133편 1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운동을 통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 됨을 이루고 나아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하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의 씨앗과 나는 특별해요’, ‘교회로 와요’를 작사 작곡한 노아 정래욱 대표,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의 프로듀서이자 워너원, 걸스데이, 소향, 박정현, 다이아믹 듀오, 어반자카파 등의 가수들과 작업한 최영호 음악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릉별엘교회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찬양 페스티벌의 뜨거운 현장은 6월 2일 (토) 16시 30분 GOODTV를 통해 방송된다. GOODTV 방송은 KT SkyLife 193번, IPTV(KT 234번, SK 303번), 케이블TV(CJ 헬로비전323번, 티브로드 224번, 디라이트 303번, HCN 서울 545번, 그 외 614번, 납인전 406번, 하나 172번, cs푸른 703번, 울산중앙208번, 충북 191번) 및 홈페이지(www.goodtv.co.kr)와 GOODTV 어플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까지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CONCERT 무대를 펼쳤다. 이들의 뜨거운 무대에 관객들은 엄청난 함성과 환호를 쏟아냈다.

제 1회 대한민국 어린이 찬양 페

스티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아와 노아틴에이저곡을 안무와 댄스를 책임지고 있는 김민선 교사와 이민정 교사, GOODTV 노아 소년 합창단 김은실 지휘자, ‘너는

우쿨렐레 노인율동 찬양단 한국 순회공연

동부부모님선교회 설립7주년 특별행사

연로하신 부모님 공경과 효도 운동에 앞장서며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 노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동부부모님선교회(대표 장은석 목사)가 오는 10월 선교회소속 노인들로 구성된 ‘우쿨렐레 노인율동찬양단’ 한국초청순회연주에 나선다.

한국순회공연은 선교회 설립 7주년을 기념해서 선교회 소속 노인들로 구성된 우쿨렐레 악기찬양단이 선교회 모임과 지역 행사에서 그동안 선 보인 곡을 중심으로 노인 율동찬양단과 연합으로 순회 연주를 한다.

동부부모님선교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동쪽 샌버나디노 카운티 랜초쿠가몽가 지역 양로병원과 지역 거주하는 노부모들을 위해 선



교사역을 펼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정기모임을 갖고 예배와 성경공부, 찬양, 친교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무료 진료와 건강 및 신앙 상담과 미국 거주자들의 영주권, 시민권 수속 대행과 메디칼과 소셜 업무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정성으로 도와주고 있다. 특별히 교통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차편도 제공하고 있다. 선교회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프로그램은 무명의 후원자들의 봉사와 선교헌금으로 지난 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현 기자

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12년 한 차례 위헌 여부 심리가 있었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중요하다. 그런데 헌법 우리 법률 체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엇갈린 주장이다. 민법에서는 태아를 한 인격체와, 사망으로 보지 않고 있고, 자연인처럼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태아이트, 영아이트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 ‘낙태죄’가 성립된다. 출산 후 죽이면 ‘영아 살해죄’가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낙태죄”는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보면, 제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70조에도 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95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두고 벌이는 ‘합헌’과 ‘위헌’ 논란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와 같은 격양된 목소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물론, 여성의 건강이나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에 대하여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가 있다. 이에 의하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10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에 의하여 사라져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생명경시 현상이다. 그런데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체가 어머니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는 존속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8.웨신총회 하계 목회자 수련회 공고

주제 : 삶의 원천이신 나의 목자(시편 23:1~6절)

총 회 장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제1부총회장



오상렬 목사
(승리교회)

제2부총회장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제3부총회장



김영환 목사
(생명성교회)

총 무



김정욱 목사
(충일교회)

- 일 시: 6월 25일(월) ~ 27일(수) 오후 5시
- 접수: 오후 3시
- 문 의: 총회 02)835-2606-7
- 장 소: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 주 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모항 해변길73 ☎063)580-0700 서기 010-8476-5282

- 대 상: 총회산하 교역자 부부 (목사, 담임교역자)
- 회 비: 개인당 7만원, 부부 2인 1실 개인당 10만원 (간식, 물품, 기념품, 경품 후원하실분 환영)
- 찬조: 후원하실 분은 미리 입금 부탁드립니다.
- 계좌: 우체국 013821-01-002737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 둘째날: 오전과 오후 주변 관광지 투어
- 준비물: 아옷도어, 모자, 선글라스, 워킹화, 체육행사 예정

☎ 063) 580-0700 서기 010-8476-5282 • 웨신총회 하계 목회자 수련회는 ‘유익한 특강과 뜨거운 영적충전의 보고가 가득합니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사무실:(우)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3층) ☎.(02) 835-2606-7 Fax(02) 835-2608 http://ws21.org

▣ 목양칼럼 - 19 -

세상을 이긴 이김 “물과 피와 성령”

《지난호 이어서...》

13 해방군으로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로써 해방 받고자 독립군처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승리로 인한 기쁨도 잠깐,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신음하며 고통당하지는 않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갈 5: 4)라고 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을 자기 힘과 노력과 행위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져서 항상 저주 아래 있으므로 고통과 좌절, 곤고함에 빠져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곧 독립군과도 같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 : 10). 물론 독립군으로서의 자랑과 영광이 있지만 해방되기 전에는 이 자랑과 영광도 상대에게는 비방거리가 된 것처럼 결국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는 고백을 하기까지 자기 힘과 노력과 행위로 포장한 자기의 자랑과 영광이 도리어 해방과 자유를 얻는 데 막대한 지장이 되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알게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행위로써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 : 19-20)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과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방군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독립군이 되어 해방이 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자기 힘과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고자 함이요 해방군이 되어 해방을 누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오직 믿음으로)로 구원 받고자 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고 하심 같이 우리가 이미 해방군이 되었음을 믿고 해방군으로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 싸우며 이슬라함 백성이 홍해를 건너 후(세례) 가데스바네아에서 육로

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지 않다가 광야에 머물러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풍요로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물이 그진 것같이 이제 독립군때 지원받았던 부족한 물자에 의지하지 말고 해방군에게 주어진 풍족한 물자를 누리시고 승리하 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연약함과 허물에서 또한 마귀의 종 노릇하던 옛사람과 율법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과와 영원한 사망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약속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주시는 싸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여호와와 군대 장관의 도움으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깨끗한 신부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14. 세상을 이긴 이김 “물과 피와 성령”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 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요1서 5 : 4~8).

사람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겼습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고 이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직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요일 5 : 5~8).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물이란 곧 영생수(요 4: 14)요 하나님의 말씀(고전 10: 4)입니다. 흙 자체로서는 어떤 형상을 이루지 못하나 물과 혼합하여 진흙이 되었을 때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흙으로 지음 받은 인간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물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즉 영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신의 더러움과 어둠에 속한 비진리들을 이제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반죽을 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써 임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물과 피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물)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만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 : 38~39).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같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분야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부족함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말씀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무한경쟁시대 미래 교육방향 제시4)

《지난호 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교육이 영순위가 되어야 한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혹은 필요성을 묻는다면, 동서양의 역사학자들의 저서나 혹은 그들의 정의를 근사하게 서술하는 것보다, 진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정리된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삶에 지표화하고 미래를 과거.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즉, 과거에 잘 살던 민족은 그 보다 더 잘살기 위한 교훈이나 방법을 찾기 위함이고, 반대로 과거에 불행했음을 겪은 민족은 그것을 현재나 미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재 경험하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피해가기 위함일 것이다.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인류의 역사를 설명’한 인도의 아놀드 토인비도 있고,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변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매년 범람하는 나일 강 덕분에 농작물, 축산, 천문학과 건축학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본 것이다. ‘역사를 읽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 영국 윈스턴 처칠총리의 명언이나,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가이며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선생의 ‘역사를 읽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도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말한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라고 한 것도 우리 시대에 가장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불과 1년 전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 교육으로 바꾼다고 하여 파동이 우리나라를 한번 크게 진동시켰고 지금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으면서 원만한 사건보다 강하게 사회를 진동시켰다. 역사교육은 때때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된다. 민족의 과거 행적을 후추어내다보니 그 분들의 공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후대인들의 현재일장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역사교육은 현실적으로 볼 때, 장년보다 청소년기에 의 역사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가난한 국가,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참혹한 국가가난의 경제를 탈피하기 위하여 수십 년간 국가운영정책이 경제를 1순위에 놓았고 과거 굶어도 선비는 곡괭이를 들지 않는다는 선비정신이 싹 사라지면서 사회 전반이 먹거리 혹은 출세기에도 치중하는 데 전 국민이 정신과 노동이 집중되고 경정하였다. 그 결과 불과 60년 만에 세계10대 경제대국이 되는 기적을 만들었고 세계인들은 그것을 두고 ‘한강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 70년간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 혹은 역사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또 역사를 후대들에게 강하게 교육시킬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가난 앞에 역사는 다소 혹은 잠시 경시될 수밖에 없었던 주체였음을 인정한다. 3공화국의 출발인 박정희대통령시절에는 굴뚝경제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다보니 기술제일주의 사회였다. 공업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공과대를 졸업한 인력이 우대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 동안 경영관리인력이 필요하다보니 경영, 경제를 공부한 전문 인력이 대우를 받았다. 전국에 모든 대학이 공과대와 경영대가 없는 대학이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부모들이나 교육기관에서 역사책을 들고 그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영구존속이나 무궁한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배고픔을 극복하는 당면한 숙원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잃는 것만큼 참혹한 것은 없다.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36년이나 잃어본 경험, 역사를 가진 나라는 더 더욱 그것을 통절하게 느껴야 한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려 불과 스무 살도 안 되는 처녀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로 동원되어 군인들의 성노리개가 되었던 아픔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젊은 후대들에게 영어나 수학을 먼저 가르쳐야 할지 아니면, 역사를 가르쳐 적어도 젊은 세대들이 애국심을 고취하여 절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역사를 겪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할지 문제를 해볼 필요도 없이 그 답은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윈스턴 처칠이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읽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한 말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 어쩌다가 젊은 사람들은 만나서 역사라고 할 만한 이야기기도 아니고 그저 나라의 5년 10년 전의 과거 이야기만 하려해도 시작부터 그들의 눈과 귀는 돌아가 버린다. 이들의 눈과 귀에는 돈 버는 아이템과 돈 잘 쓰는 아이템을 이야기해야 눈이 쫓겨나간다. 이 또한 과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나라가 응당히 해야 했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이해된다.

이제 10대의 경제대국 서열에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강자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농락당했던 역사를 우리의 미래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역사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교실로 다시 가지고 가야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영어, 수학 잘하는 우등생들에게 가중치를 두고 선발했다면 이제부터는 역사를 잘하는 우등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라를 잘 지키는 만큼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더자신교회 담임목사
JTNTV 상임이사

우리의 역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말이다. 미군의 힘에 의해 아주 오랫동안 안정된 나라의 유지와 잘 살고 있다 보니 이전 그 미군의 힘이 마치 영구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존치되는 영구적 평화보조대쯤으로 마쳐 된 것은 아닌가 싶다.

과거 김영삼, 노무현대통령은 역사바로 세우기를 하려했고, 박근혜대통령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고 한다. 시대별로 대통령들의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심을 정확화하여 국민들에게 실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태어날 정부는 이와는 다른, 천년만년의 대한민국의 영구보존, 평화보존을 위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과거 역사에 대한 물림이 그들 가슴에 크게 남게되도록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가난과 전쟁 그리고 식민 지배를 벗어난 민족에게 그 다음 숙제는 그 역사를 다시 맞지 않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영어, 수학보다 선행되어야 할 역사교육인 것이다. 영훈(월)에서 나라의 소중함과 민족의 사랑이 빠져버린 세대들이 국가 구성원의 주류가 되면, 이것은 국가존속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끔 전철을 타고 장시간을 기다보면 젊은 학생들의 거의 모두가 휴대폰을 통해 게임을 한다. 또 일부 학생들이 보는 책을 끝낼질 해보면, 100이면 100 한결같이 영어책이 대부분이다. 과거와 같이 소설책을 읽은 학생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 더욱 역사책을 보는 학생들은 없다. 자라나는 우리의 나라기둥이 될 젊은 세대들의 영혼은 결국 게임놀이와 영어가 청춘시절에 채워진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30대,40대가 되어서 국가 일을 보게 되는 고위공무원 혹은 국회의원이라고 된다면, 어떤 결정을 할지 뻔한 일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가의 국익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당파, 자기의 소속집단, 자기가 속해있는 직업 혹은 자기 자신과 결부되어 이익을 만들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책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애국, 애민익의 없는 영혼을 가진 위정자들이 어떻게 국익우선의 결정을 하겠는가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총결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5시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641-0687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010-3035-5704

제1회 총신대 실천목회동문 연합컨퍼런스 개최

한국바른교회연합 주관으로 인천제일교회에서 첫 출발

제1회 총신대학교 실천목회동문 연합컨퍼런스가 한국바른교회연합 주관으로 지난 10일(주일)오후3시 30분, 인천시 남구 인하로 소재 인천제일교회(담임 이흥선 목사)에서 동문 및 이웃 성도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부 예배와 2부 은혜의 시간 순서로 진행했으며, 유영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이준일 목사의 기도, 이철호 목사의 성경 봉독(요20:31, 행2:36), 이주는 목사의 찬양에 이어 삼일공동대표 조성대(예장총회 증경총회장)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성대 목사는 “예수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실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가는 지 들어오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기도하고 찬송과 말씀으로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고,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한다”고 했다.

또한 조목사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낚시로 기도한다. 반면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새생명 얻은 주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짊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부활 승천후 모든 이룰위에 뛰어난 예수그리스도 권능의 이름으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제일교회 찬양단의 헌금송



으로 헌금시간을 가진후, 강영란 목사의 헌금기도, 이흥선 목사의 광고 및 인사말씀에 이어 지난 3회 포럼시 섬김의 공로자 김문자 목사

에게 감사패를 증정한 후 강대철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전주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은혜의 시간은 최병배 목사의 기도, 범대진(국민대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박사의 축사에 이어 정은정 목사/김문자 목사의 간증과 안병숙 목사의 조교소감 및 간증, 조성환 목사/최규성 목사/배영후 선교사의 3분메세지, 서희자 목사/이영순 강도사/이기화 장로의 3분 칼럼 등 성령의 열기로 뜨겁게 진행했다.

연이어 진행된 합심기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는 이주는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는 신경숙 목사가, <총신대 실천목회연구원을 위하여>는 김맹숙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서 인천제일교회 반주에 맞춰 이흥선 교수의 찬양 및 통성기도 인도로 성령충만 은혜충만의 열기가득한 시간으로 진행했으며,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모든 행사는 성료됐다.

〈신방황: 기독교방송 한창환 기자〉



필라안디옥교회 “2018년도 단기선교 파송식 거행”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는 지난 5월 20일(주일) 오전 11시 OICC예배(One in Christ Church, 가족예배)때 2018년도 단기선교 파송 예배를 가졌다. 총 24개의 선교팀(국내 및 해외 선교 14개 팀과 지금, 여기서부터의 선교인 Here and Now 10개 팀)에서 457명이 선교에 동참했다.

파송지는 아리조나 나바호 등 전세계 24개 지역이다.

이날 파송예배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후, 출정식을 위해 24개의 선교팀이 강대상으로 입장했다. 이날 파송예배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후, 출정식을 위해 24개의 선교팀이 강대상으로 입장했다.



호성기 담임목사의 파송 기도 후,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English ministry, Hispanic ministry, Korean ministry) 다함께 각자의 언어로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선교팀들을 파송 하며 격려했다. 선교지

로 가는 457명과 여러 상황으로 선교에 직접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후원하기로 결단한 143명까지, 총 600여 명이 선교에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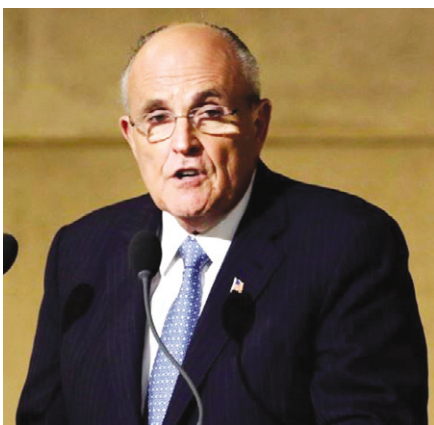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트럼프 회담 취소하자, ‘김정은 옆드려 애원’”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김정은이 “옆드려 애원” 했다고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트럼프 대통령 법률고문)이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한 비즈니스 회의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통해 당시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WSJ는 줄리아니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배경으로 북한 고위관료들이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을 비난하고 모욕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전하며 이어 “김정

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옆드려서 애원했다”, “이것이 바로 그(김정은)가 취했으면 하는 자세”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과의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으며, 김정은을 향해 “마음이 바뀌면 전화하거나 편지 하라”고 전했다. 이어 김계관 제1부상이 긴급히 답화를 발표해 회담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이 지난 1일 백악관을 찾아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다. 두 정상간 회담

은 오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 칼럼 |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붉은 부리찌레끼가 나뭇잎을 물고 둥지로 돌아왔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가 기다리는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가 생각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돌아왔던 그 비둘기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목말라 하는 기쁜 소식을 기다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은 세계가 주목하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회담이 끝났다. 여러 번 실망했던 터라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고 절실한 것이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합의문이라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겨우 이런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동안 세계가 떠들썩하도록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각료들이 오가면서 조율을 하고 준비를 했나 싶을 정도다.

물론 가벼운 문제라 아니나 하루아침에 똑딱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도 그동안 트럼프가 해 왔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도 실망스런 수준이다. 차라리 그 말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으

막완근 목사
두란노교회 본사 상임이사

한기총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전방 청성부대 방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군선교위원회(위원장 고석환 목사)와 한기총 임원 및 총대들은 지난 1일(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최전방부대인 제6사단 청성부대(사단장 이진영 소장)를 방문했다. 이는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국군장병들을 위로하고 군의 안보상황을 확인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군선교위원회가 주최한 것이다.

먼저 청성부대 필승교회(군종참모 소령 박광훈 목사)를 찾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일정을 시작했다. 고석환 목사의 사회로 이

건호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주를 사랑하는 자의 복’(시편 72편 14-16절)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엄기호 목사는 “오늘 우리는 남북 문제 앞에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양측 정상들이 감격적인 만남도 가졌지만, 결국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면서 “이제 북한에 종교가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사랑 편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강조했다.

군종참모 소령 박광훈 목사는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하여 기도로 많이 준비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북녘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놀라운 초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목사님들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현전들에게 전해져서 새벽이슬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길 기도한다”고 인사했다.

필승교회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 하사금과 영락교회 담임목사인 고한경직 목사의 후원금으로 건립된 40평 규모의 건물이다. 지난 2001년 필승교회 건립 30주년을 맞아 영락교회 군선교부, 성심회, 제2여전도회의 후원으로 건물외관 및 실내시설 노후로 재건축했으며, 2015년에는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봉헌했고, 현재 신앙전력화를 위한 최전방의 전진기지로서 청성부대 장병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론뮤직(아마히엘렉톤 한국관매대표) 대표 김현성 집사(안산동신교회)는 아마히 엘렉톤 전자오ργαν 한 대를 기증했고, 필승교회에 전달했다.

기도회를 시작으로 부대소개 영상 시청, 북한 노동당사 관람, 평



화전망대 관람, 전방 적진지 및 백마고지 확인, 제2광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 전원이 군복으로 환복한 가운데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부대 병사 식당에서 장병들과 동일한 식사를 같이 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6사단 본부를 찾아 사단장 이진영 소장을 만나 약 1시간여에 걸친 대담을 나눴다. 이 소장은 한기총을 향해 신앙전력화, 군 장병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며, 한국교회가 이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석교회의 안수집사로서 평소 탄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전도에도 앞장서고 있는 이 소장은 “오늘 주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한기총의 임원 분들이 방문해 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럽다. 1만2000명 우리 장병들을 대신해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평화를 지키는 국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소장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며 국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우리 6사단은 한시도 파수꾼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수록 철모관과 군화끈을 동여매야 한다는 것을 계속 교육하고 있다”면서 “통일의 감격은 우리가 굳건히 나라를 지킬 때 가능하다. 우리가 풀려져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최강의 군 전력유지하기 위해 장병들의 신앙 전력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우리 사단은 한번도지지 않은 최강의 군대지만, 성장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그 중 1번이 신앙전력화다”면서 “지금도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훈련병이 오면 90% 이상이 세례나 수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소장은 현 6사단 전 장병의 70%가 크리스천인 점과 세례자들의 신앙정착을 위해 자대에서 5주간의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최강청성부대를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기가 좋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이다. 다윗의 별이 백전백승을 상징하듯, 청성의 별도 무조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한기총, 제29-3차 임원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8일(금)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3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5명 참석, 8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전토의가 이어졌다.

한기총과의 연합의 건에 대해서는 한교총과 연합 혹은 통합을 한다는 것이 현재 한기총 정관에 위

배되기 때문에 안전에서 ‘한교총’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까지 진행했던 통합에 관한 합의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지난 29-2차 임원회(5월 11일)에서 부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원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가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한국교단 연합추

진위원회’로 명명하기로 하고 5인의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대표회장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대표회장이 위원을 구성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안전으로 상정된 임시총회의 건은 폐기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김정환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했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으며, 회의는 김용도 목사(명예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 칼럼 |

내 삶의 여유-산과 숲

산과 숲은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자 자연의 얼굴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산자락에서 태어나서 산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다시 산자락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산과 숲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이자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산과 숲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사한 가장 큰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공급원임과 동시에 험과 여유를 제공해주며 각종 동식물들에게도 그들의 서식지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산과 숲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다.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새해 벽두부터 산을 찾지 않는가. 전국 각지에서 명산이라 소문난 산은 물론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동네의 뒷동산이라도 올라간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위험과 추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새벽 어두움과 추위를 뚫고 산에 오르는 기쁨은 올라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다.

그렇다. 산과 숲은 우리의 단짝 친구다. 우리는 산을 찾을 때마다 친구 집에 놀러간 기분이다. 부담 없고 항상 가도 싫은 내색하나 하지 않는 정겨운 친구 말이다. 하지만 산과 숲은 찾는 사람들이라 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가지는 않는다. 다들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올라간다. 산의 아름다움에는 높고 깊은 산새도 있으며,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물도 있으며, 자연이 만들어낸 천혜의 폭포도 있다.

숲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 있으며, 바람에 산들거리는 풀잎들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자 산과 숲을 찾는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대자연과 어울리며 그곳에서 힘을 얻고 마음에 여유를 찾기 위해 올라간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사람들은 산과 숲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산과 숲을 찾아 힘을 얻고 여유를 찾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산과 숲을 찾는 이유는 심신의 건강과 단련을 위해서다.

곧 할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에 오르는 자체가 운동이다. 산과 숲에 기대어 사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다. 그곳에만 가면 삶에 기운이 생기며 마음에 안정을 찾는다. 산과 숲은 지친 내가 찾길라도 하면 항상 두 팔을 벌려 나를 맞아줄 태세다. 내가 그곳에서 쉬도록, 내가 힘들어 했던 나의 몸과 정신이 편히 쉬도록 힘의 공간을 제공해준다. 산은 내 삶의 활력소다.

산을 오르다 보면 곳곳에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도 발견된다. 보이는 대로 수거해 보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로 노력함이 필요하다. 이성 간의 사랑에도 책임이 따르듯 자연을 마음껏 애용한 우리에게도 자연을 보호할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산과 숲'의 고마움을 느끼고 동시에 자연보호에 앞장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가야한다. 바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임예성(웅선) 목사
본설위원

칼빈의 설교관(說敎觀) 2

〈지난호 이어서...〉
“먼저는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표명하십시오네 사람들을 택하여 자기의 사자(고후 5:20)가 되게 하시며 그의 비밀한 뜻을 해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람들의 겸손을 위한 훌륭한 유익한 훈련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와 같은,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신다.....혹에서 나온 보잘 것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없을 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 배우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증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의 보화를 약한 짐그릇에 숨기신 것은(고후4:7) 우리가 얼마나 그 보화를 귀중히 여기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임명된 한 사람의 목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제자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한 입으로 공통된 교훈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이일을 통해 교회를 한 끈으로 묶으셔서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2) 사도의 계승자인 설교자

그리고 칼빈은 “현대의 교사들(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직분 혹은 신학교수들)은 고대의 선지자에(듣지 못한)서) 그리고 목사(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과 성례를 집행하며 경고와 권면하는 일을 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직분)는 사도에게 제자 훈련과 성례를 집행하며 경고와 권면하는 일을 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직분)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했다(기독교 강요 4권 3장 5).

그는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교회의 사역자들은 주께서 자기의 사자로서 파견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12사도와는 구별되는 직분(듣지 못한 새로운 사임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이라고 했다. 목사가 사도와 같은 책임(각각 그에게 맡겨진 교회를 다스린다는 점을 제외하고)을 맡았다는 것은, 주님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날의 목사가들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기독교 강요 4권 3장 5).

그리고 칼빈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말이 오늘날의 목사에게도 해당된다’고 하였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나는 직분을 맡았노라”(고전9:16-17).(기독교 강요 4권 3장 5).

사도는 전 세계를 위해 활동했지만 목사는 각각 자기가 맡은 양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사도와 동일한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눅 10:16)라는 말씀을 목사의 말씀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사에 대한 고등(高等)한 관점이 그를 말씀 사역에 더욱 정진토록 했던 것이다.

2. 설교에 대한 칼빈의 인식(認識)

이러한 칼빈의 설교자에 대한 관점은 그의 설교에 대해서도 고등한 관점을 갖고 행하게 했다. 오늘날 설교를 마치 “도적적 흥화”나 교장 선생님의 “지당한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칼빈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1)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칼빈은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선언했다. 그는 Person(인격)과 Function(기능)을 구분하였다. 그는 기독교 강요 4권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일(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임하셨으며 그것은 자기의 권리와 영광을 이양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연장을 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말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입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가?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관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여 자기의 사자(고후5:20)가 되게 하시며 그의 비밀한 뜻을 해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셔서 인간들에 대한 자기의 관심(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람들의 겸손을 위한 훌륭한 유익한 훈련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와 같은,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신다.

....혹에서 나온 보잘 것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없을 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 배우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기서 우

서명법 목사

예수패밀리처치



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증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의 보화를 약한 짐그릇에 숨기신 것은(고후4:7) 우리가 얼마나 그 보화를 귀중히 여기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이다.(기독교 강요 4권 3장 1) 그래서 그는 자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됨을 이렇게 말했다.“말은 내가 하지만 교육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내가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일 저 높은 곳으로 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이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나를 유익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소리는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설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라고 했던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21)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

〈지난호 이어서...〉

(3) 이웃과의 관계 회복

영성교육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 이시고 그 내용도 하나님 자체이지만 교육의 대항자는 인간이고 학습 대상자 역시 인간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영성교육은 자연적인 세계, 가시적인 세계인 땅의 것을 가르쳐야 하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자연적인 세계를 지배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영성교육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인간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아는 일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 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 이외의 인간에 대하여 이해해야 하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사회와 문화, 인간의 역사 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영성교육은 다루어야 한다.

영성교육은 인간의 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의 관계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대하여도 영성교육은 감당해야 한다. 성경은 이상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담고 있으며 이미 성경 속에서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 학의 이론들이 추출되고 있다.

3) 영성교육의 방법과 매체

잘 가르치는 것과 잘 배우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 단어에서 ‘가르친다’(lamad)는 단어와 ‘배운다’(limmed)는 단어는 모두 동일한 어근(l-m-d)을 가진 단어들이다. 이는 뛰어난 교사는 부지런한 학생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뛰어난 학생은 훌륭한 교사 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

도 된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삶에 어우러져 있는 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동일한 실체에 속한 부분들이다. 교사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골 1:28)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역할은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교사 자신과 교사로부터 듣는 자를 구원하는 것’(딤후 4:16)이다. 교사는 ‘배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관하는 것’(딤후 4:2)이 교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가정은 교육 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육의 장이다.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만들어졌으며(창 2:18, 24), 가정의 질서를

홍향표 목사



유지하고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들, 특히 아버지의 책임이었다. 창세기 18:19에 보면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온다. “내가 그로 그 자신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란 말씀은 교육에 대한 성경에서의 최초의 언급이 아버지께서 자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말씀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의 주요 목적이 직업적이거나 문화적이 아니라 도덕적이며 영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점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위임,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시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장기도원
유초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여민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8 동여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에녹부흥신학 모집

설립자 / 대표 이사장 학장 / 이사 이 사 부학장 / 이 사 사무국장



박영민 목사



이조성 목사



임순학 박사



정기남 목사



김명옥 박사



김영애 전도사

교수진

박영민 교수, 임순학 교수, 김명옥 교수, 김선우 교수, 박경자 교수, 김성기 교수, 최동준 교수, 모성춘 교수, 윤동훈 교수, 김정우 교수, 윤주만 교수, 최혜숙 교수, 이선한 교수, 김지연 교수

과정	수업일	학제
기독교예배 과정	매주 목, 금, 토	2년 6학기
신학부 과정	매주 목, 금, 토	3년 9학기
목회대학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2년 6학기
신학연구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3년 9학기
학술원	매주 토	1년 3학기
찬양치유교실	매주 목	2년 6학기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교단 가입 현황

저희에녹부흥신학은

*교육은 방학 없이 1년 3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정통 장로교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교육과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녹))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녹총회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정시 회원 교단이며, 본 협의회로부터 신학 교육을 인증 받았습니.

*총회장 박영민 목사는 본 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공동회장 및 신학위원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흥사 및 애능 사역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은 "국제에녹부흥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인천)등불교회.

· 주소: 인천 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 문의: (사무국장)010-6778-0651, (대표)010-2080-0651

배우고 기도하며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길 기원!



참고 목사안수 입직예배 동영상
은 홈페이지 <http://www.jntv.kr> /
<http://www.cpj.kr>을 클릭하고 들어
가 사진 영상에 기록되어 있으며
많은 시청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 3:14)이란 주제로 5월 18일(금) 오전 11시부터 19일(토) 오후 1시(1박2일)까지 경기도 광택시 진위면 동천길 55 소재 광은기도원(원장 김한배 목사)에서 2018년 웨신총회 강도사교시 합경자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에 앞서 총회교육부 서기 황봉기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총회 교육부 미션

또한 이영풍 직전총회장은 온실에서 자란 식물과 야생에 대해 예를 들면서 신학은 온실에서 자란 식물과 같아서 목회에 큰 효과는 없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선배 목회자를 만나 지도를 받는다

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환영사가
있은 후 1박 2일간의 강도사 연수
교육이 시작되어 첫날 1교시에 “한
국 목회자의 선교 전략”에 임용선
박사, 2교시 “성공적인 목회를 향하
여”에 김대성 목사, 3교시에 “21c 교
회성장을 위한 목회자의 새로운
Leadership Paradigm 추구”에 허창범
박사, “웃음, 복음, 치유사역 오리엔
테이션”에 진정 전도사, 둘째 날
4교시는 “목회자의 소망”에 신인창
부총회장, 5교시에 “성경과 설교” 박
정균 박사 등이 각각 강의했다.

부총회장 오상열 목사의 인도로
폐회예배가 진행되고 총회 회개
성소모가 기도회,문해숙 전도
사가 특송을 사자화가 성경봉독
(딤후3:14절)하고,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
라”란 제목으로 설교하였으며, 총
무 김경옥 목사의 인사와 광고가
있는 후 총회장 허창범 목사가 축
도했다. 이어 허창범 총회장은
2018년 총회 강도사연수교육에 끝
까지 열과 성의를 다한 19명의 강
도사를 격려하고 수료증 수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문 구축자 확보를 위하여 전국 지사 및 이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언론사 규칙을 준수하고 본사 발전을 위하여 기도과 후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7월 5일(목)~6일(금) 1박 2일을 일정으로 하계수양회를 정동진으로 결정하고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고말길 58-2 강릉산성그리움교회(담임 최낙현 목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 지저스타임즈 인터넷방송 JTNTV(<http://www.jmntv.kr>)은 기독교 JTNT방송으로 개명하고 또 하나의 홈페이지 <http://www.cpj.kr>가 개설되어 있어 많은 시청과 기도 후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계를 향해 전파되는데 있다면서 이사 여러분 개개인이 신 문방송의 CEO 즉 경영자라면서 본 사 발전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선우 목사(실무이사)가 봉헌찬송을, 상임이사 이선한 목사(실무회장)의 봉헌기도,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가 인사 및 소개,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대표회장)의 광고가 있었다.

이사장 / 총재 (연부협 총재)	사 장 (명예총재)	대표이사 (상임대표)	사무총장 (대표회장)	명예이사장 (자문)	명예이사장 (자문)	고문 (지도위원)	부이사장 (명예총재)	부이사장 (명예총재)	부이사장 (부총재)	부이사장 (부총재)	수석살의이사 (부총재)	부사장 (수석상임회장)	부사장 (수석상임회장)	부사장 (부총재)	부사장 (부총재)	
허창범 목사 (웨신총회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정기남 목사 (진리선포교회)	곽영민 목사 (에녹총회장)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이영풍 목사 (빛 교회)	이홍규 목사 (지구촌교회)	이규필 목사 (합보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박정균 목사 (번성교회)	오종설 목사 (총성제일교회)	이윤자 목사 (벨렐중앙교회)	박수영 목사 (대구지사장)	강요셉 목사 (축복받는교회)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되자인(해신교))	
상임이사 (부총재)	자문 (연구원장)	상임이사 (강사단장)	상임이사 (총무국장)	자문 (지도위원)	자문 (지도위원)	상임이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논설위원)	상임이사 (논설위원)	운영이사 (실무회장)	상임이사 (부회장)
노병주 목사 (부산지사장)	이흥희 목사 (축복받은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백운성 목사 (안산지사장)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박형위 목사 (홍신대학교수)	신언창 목사 (웨신부총회장)	곽동훈 목사 (강원본부장)	최낙현 목사 (강원지사장)	이기학 목사 (포항지사장)	홍향표 목사 (경북사무총장)	서명범 목사 (예수패밀리)	곽완근 목사 (공덕교회)	엄광일 목사 (한사랑교회)	임용선 목사 (벨렐교회)	윤재섭 목사 (광주중앙교회)	이성한 목사 (영광교회)
상임이사 (실무회장)	상임이사 (실무회장)	상임이사 (회계)	운영이사 (실무회장)	운영이사 (실무회장)	운영이사 (공동회장)	운영이사 (공동회장)	총무이사 (실무회장)	취재부기자 (실무회장)	언부협 (공동회장)	평교과 (홍보이사)						
유은주 목사 (예교장성교회)	김선우 목사 (주사랑교회)	김부경 목사 (진리선포교회)	박영미 목사 (하나님이되자인(해신교))	김창숙 목사 (꾸미오리)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류기청 목사 (천안지사장)	김지연 목사 (성진교회)	김정욱 목사 (웨신총회총무)	정사라 목사 (성진교회)	성순희 기자 (JTNTV)						

모임 일시 장소안내

일시 : 2018. 7. 5일(목)-6일(금) 1박 2일 (5일 도착예배 오후 4:30분)
 장소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출발길 148-19(옥계면 금진리)
 한국어성수련원(여성복지시설) <http://kwcenter.or.kr>
 문의 : 033)530-4300, (사무국장)010-2080-0651, 총무국장 010-2479-7793)
 (JTNTV인터넷 <http://jntv.kr> / <http://cpj.kr> 배너광고 홈페이지 참고...
 협조 : 숙소 예약관게로 참석인원을 확인 중입니다. 문자로 문자 남겨주세요..

■ 지저스타임즈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에서는 문서선교에 뜻을 같이할 이사와님과 능력 있는 부흥사님의 가입을 전적 환영합니다. 현재 인터넷(<http://jtntv.kr> <http://cpj.kr>) 두 곳에서 많은 정보와 교계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흥선 교수, 제3회 개혁주의 포럼 개최

목회자의 자질“신학자들 책임 커”

종교개혁 501주년, 제2의 종교개혁은 목회자가 변해야!

충신대학교 실천목회연구원이 주관, 한국바른교회연합이 주최하고, 129응급환자이송단과 한국환경방송의 협찬과 국민일보, CBS, GOODTV, (사)한국신문방송협회가 후원한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제3회 개혁주의 포럼이 “제2의 종교개혁을 향하여”란 주제로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5가 소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세미나실에서 12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제2의 종교개혁을 향한 포럼은 열강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1부 예배, 2부 발제강의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전주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범대진(국민대 사회교육원 주임교수)목사의 기도, 강영만 목사의 성경봉독(살후 2:13-16), 서울기독대학 이강평 총장은 “진정한 구원”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인용 말씀을 선포했다.

외에도 엔크리스토성경연구원장 이상달 박사의 축사, 사회자는 광고를 통해 “오늘 발제내용은 교파 신학과 기존 신학적 학문이나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끝까지 경청해 달라는 부탁과 강의 중 질문은 자제해달라는 부탁과 질의 시간에 질의도 비치된 메모지에 작성 제출해달라는 주문에 이어 예장총회 증경총회장 조성대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최병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



부 1교시 서철원 박사 발제강의는 “성경적 성화법”을 주제로 시작되었으며, 서 박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후 다시 예수 믿기 전 죄의 욕망이 되살아나, 옛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되는 반복은 말로만 일깨우고 이를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부나 신학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 박사는 또 “로마교회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로 그리고 금욕과 고행과 선행 등 일정 자질을 갖춘 자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는 인간의 자격과 능력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준 믿음만이 구원할 수 있으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후 오직 믿기만 하면 하

나님 은혜로 믿는자 마음에 직접 주시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예수 십자가 피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음으로 구원받는 길 외에는 없다

고 했다. 외에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제 무너졌는가에는 AD70년 티토장군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십자가 때임을 강론했으며, 구약의 끝은 언젠가에는 말라기 선지자 때가 아닌 세례요한 때까지임을 각 문항마다 해당 성경구절을 찾아 확인시켜 주는 등 게시물을 예제로 들어 80%이상 십자가 때 사건을 종말대로 잘못 해석된 산적된 부분들을 충신대 실천목회 강도 높은 강의와 부차적인 계속되는 포럼을 통하여 바로 세울것을 약속 하는 등, 세계를 향하여 제2의 종교개혁을 향하는 의지가 확고한 개혁주의 컨퍼런스를 실감케한 포럼이었다. <신방협 공동보도>

그 첫 번째 설문조사를 보면, “먼저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주관식)”란 문항에, 제사/희생제물/속죄물/죄송의 피(33%), 율법/계명 지킴으로(20%), 할례/할례와 제사(15%), 하나님 믿음으로/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8%), 양심으로(4%) 순으로, 그리고 두번째로 “신약시대 구원은 어떻게(무엇으로) 받나요?(주관식)”란 문항에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82%), 말씀을 지킴으로(10%),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매일 회개함으로 각(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번째 문항으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사지선답)”란 문항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78%), 그대로 영원하다(22%)로 조사 되었음을 공개했다.

이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 피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음으로 구원받는 길 외에는 없다고 했다. 외에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제 무너졌는가에는 AD70년 티토장군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십자가 때임을 강론했으며, 구약의 끝은 언젠가에는 말라기 선지자 때가 아닌 세례요한 때까지임을 각 문항마다 해당 성경구절을 찾아 확인시켜 주는 등 게시물을 예제로 들어 80%이상 십자가 때 사건을 종말대로 잘못 해석된 산적된 부분들을 충신대 실천목회 강도 높은 강의와 부차적인 계속되는 포럼을 통하여 바로 세울것을 약속 하는 등, 세계를 향하여 제2의 종교개혁을 향하는 의지가 확고한 개혁주의 컨퍼런스를 실감케한 포럼이었다. <신방협 공동보도>

람으로 종노릇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임직식은 선임 심재호 장로의 인사와 광고가 있는 후 수도노회장 류종열 목사(소명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임직 받은 일꾼들은 다음과 같았다. O장로장임 : 박상옥, 윤창식 O집사장임 : 김만균, 유의기 O권사임직 : 한명옥, 노미란, 이미숙, 윤순석, 이정심, 오수은

교회 이경주 목사는 성도들이 조급전 서약을 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공동의회 투표를 거쳐 적당하게 임직을 하는데 왜 구태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서약을 한지 알겠는가” 반문을 하였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온다. 내 손으로 뽑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온다. 혹시 조금 부족해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그래도 내가 서약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 하고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권면하였다.

권면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담임목사는 임직패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정하였고 전국장로회 연합회장 안문기 장로는 두 명의 신임 장로에게 각각 장임축하패를 증정하였다.

이어 축사가 있었다. 이곳에 있는 회락교회 김재박 목사는 “지금까지 십수년을 기다려 오늘 임직을 받았으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평안교회처럼 든든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 평안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 일꾼이 되었으니 훌륭하단 담임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줄 믿고 축하드린다”고 했다.

또한 수도노회 장로연합회장 김천수 장로(영진교회)는 “세상 직분은 특권이 있지만 교회 직분은 별로 특권이 없고 무한한 책임과 소다. 중뿐이다”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서 기꺼이 쓰임 받게 되었으니 축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믿어 축하한다”고 했다.

축사 후에는 임직자 자녀들이 축하를 불러 기쁨을 더했고 신임 유창식 장로는 담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가 되어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사

시사

전쟁반대 시민단체, 광화문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에 페인트칠하며 조롱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 US] 한국 광화문 한복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에 페인트칠을 하는 시위를 가졌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모여 반전 시위를 했다. 이들은 ‘전쟁나도 한반도에서만 죽겠다’라는 문구에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내 걸고 미 대통령의 사진 입 부분에 X자로 스티커를 붙여놓고 페인트칠로 공격했다.

또한 집회 중 ‘미국 대사관을 철거하고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시위가 시작된 1시간 후 오전 11시에는 ‘평



화협정행동연대’ 소속 회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이곳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 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변 통일위원회 등 65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뉴스를 접한 미주 동포들은 “광화문에 인공기가 걸려도 어색하지 않겠다.”, “한국이 이미 적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새 노회장에 김창영 목사“중보기도 전력”

제46회 예장(합동)해외총회미주태평양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 미주태평양노회는 지난 19일(토) 오전 10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제46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새 노회장에 김창영 목사(화평케하는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서기 최영봉 목사(영생장로교회)가 개회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김성구 목사(한하장로교회 담임)가 대표기도, 고종길 목사(LA벤엘교회 담임)가 성경봉독을 한 후, 노회장 이금남 목사(뉴욕한결장로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이 노회장은 “사람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목사가 사랑이 넘칠 때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잘 인도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김혜성 목사(영생장로교회 담임)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축도함으로 개회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진행에서는 노회장 이금남 목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회원점명 후 성원이 됐음을 확인하



고, 각 부서와 위원회 보고 후에, 임원선출과 주요안건토의에 들어갔다. 새 노회장에 선출된 김창영 목사는 “전임 노회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새 임원들과 협력하여 사랑과 의리가 넘치는 노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겠다. 회원 교회 방문과 목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미주태평양노회 새 임원 명단

△노회장: 김창영 목사(화평케하는교회) △부노회장: 최영봉 목사(영생장로교회) △서기: 김성구 목사(한하장로교회) △부서기: 이금남 목사(뉴욕한결장로교회) △회록서기: 고종길 목사(LA벤엘교회) △부회록서기: 강재규 목사(영생장로교회) △회계: 방영섭 목사(시온성교회) △부회계: 김용설 장로(영생장로교회)

이현옥 기자

GMU 졸업식... 김광신 목사·마가렛 왕 박사 명예 선교학박사 후딩식도 가져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이하 GMU), 총장 최규남 박사) 2018년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4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비전센터에서 거행했다.

김현완 교무학장의 인도로 진행된 식순에서 다같이 찬송가 265장 ‘올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을 찬송한 후, 제임스 조 학생학장 기도, 이병구 박사원장 성경봉독, 한기홍 재단 이사장 설교, 최규남 총장 학위수여, 신승훈 총회장(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축사, 김광신 전임 총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한기홍 이사장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되십시오”(고후 9:8)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학의 과정 동안 어려운 연단을 거치며 오늘 졸업에 이르게 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종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라며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을 역설했다.

졸업식 전 오후 1시 30분 은혜한인교회 웨딩홀에서는 김광신 목사 와 마가렛 왕 박사에 대한 명예선교학박사 후딩식이 있었다.



이 후딩식은 이병구 박사원장 인도로, 김현완 박사 기도, 박기호 박사(폴리신교대학원장), 축사, 최규남 총장 집례로 진행했다. 한편, GMU 박사원은 연방정부에 철학박사(PhD in Intercultural studies) 신설을 이미 신청하였고

올해 가을 학기부터 강의 개설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삼당학 박사, 석사 과정을 준비중이다. 졸업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목회학 석사 15명 △기독교교육학 석사 6명 △선교학 석사 3명 △학사 25명 이영민 기자

미주장신대 38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 목회학석사 15명 등 총 19명 학위수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 총장 이상명 박사) 제38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2일(토) 오전 10시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에서 1부 감사예배, 2부 학위수여식으로 각각 나누어 거행됐다.

박창기 학생처장 인도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기수, 순서 담임자, 교수, 이사, 졸업생 등의 입장과 함께 공동헌 목사(KPCA LA 노회장) 기도, 김동원 목사(사노회장) 성경봉독, 박동진 학우 특송, 황천영 목사(전총회장)는 “가장 중요한 것”(마 6:33)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한다. 신학교는 불명예

리로 들어왔다가 솟덩이로 나간다는 말이 있다. 신학이라는 논리적인 학문을 공부하며 사명감과 열정 있는 자들에게 거룩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욕망과 사명을 갈라주는 역할을 한다”며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사명을 가지고 목회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구경모 교무처장 사회로 열린 2부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학위증서 수여, 시상, 격려사, 기념품 증정,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명 총장은 “배움의 공동체가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생명력은 역사와 전통에 있다.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본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선지 생도들이다”며 “졸업생들은 모교인 미주장신대와 그들이 속한 교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빛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길 소망한다. 영성과 지성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비상하여 올라가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사: 김쥬미, 김태리, 박은진, 차철환 △목회학석사: 감미영, 김선광, 박순경, 박은복, 변정민, 유영민, 이귀희, 이영근, 이우승, 이윤숙, 이은애, 전제성, 진상석, 최경진, 황다니엘 이영민 기자

“갈렘을 닮은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들”

평안교회 10명의 임직자 세위



착한사람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밝히는 행복함공동체 평안교회(담임 황의봉 목사)가 지난 5월 27일(주일)오후 3시 임직식을 갖고 장로 집사 권사를 세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의 담임목사 부부가 서울 북쪽 변방에 위치한 쌍문동에 터전을 잡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품고 지낸지 35년, 그때 어린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를 따라 나온 아빠가 이제는 60대 중반이 되어 장로로 장임을 받았고, 고등학교를 다녔던 여학생은 이제 50을 훌쩍 넘기고 권사가 되었다.

본교회 성도들과 임직자 가족 등 축하객들로 아담한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임직 감사예배는 수도노회 서기 정성환 목사(뉴비전교회)의 기도예 이어 시온찬양대의 감미로운 찬양 ‘은혜 야니미’이 이어졌고 총회장 유종국 목사(세자교회)가 여호수아 14:6-15의 말씀을 중심으로 ‘닮고 싶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중국에서는 가마우지로 물고기를 잡는데 훈련받은 가마우지는 소 한 마리 값에 팔리지만 훈련을 받지 못한 가마우지는 거위보다 싸다”면서 훈련을 잘 받은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여호수아와 같은 동료였던 갈렘은 언제나 2인자였다. 그러나 이런 일로 속상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당꾼으로 들어갔을 때

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며 여호와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었으니 갈렘을 닮은 일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2부 임직식은 임직자 효령에 이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서약을 하였다.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며, 장로회 신조와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성실하게 순종해 나갈 것을 서약하였고, 직분을 진신한 마음으로 힘써 행하여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교우들 또한 임직자들을 응원하고 성경말씀과 교회법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였다. 이에 담임목사와 안수위원들은 각각 장로 집사 권사를 안수하여 임직하고 공포하여 일꾼으로 세웠다.

3부는 권면과 축하의 시간이었다. 먼저 새터교회 박춘식 목사는 교 임직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전에 장로로 임직을 받은 분이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묻기에 “뭐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 주었다”면서 “무언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일회용 그릇이 되지 말고 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 받는 노릇이 되고, 훗날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 달라”고 권면하였다.

교우들에게 권면을 한 우이제일

한기보험 2018년 제33차 제1회 임시총회 개최

협의회 발전과 단합을 위한 정관개정, 결의 통과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이하 한기보험)는 지난 6월 12일(화)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 협의회 예배실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합동성경통회 백창준 목사가 기도, 문화예술포럼 찬양단의 특송에 이어 공동회장 김주상 목사는 단



1:8~9, 21절을 중심으로 “뜻을 정하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제자총회 김성림 목사가 “국가 안정과 통일”을 주제로, 법인이사 김영호 목사가 “한국교회와 협의회(총회, 단체)”를 주제로 각각 특별기도를 했으며, 합동제일총회 이선호 목사의 헌금기도와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대표회

장 한홍교 목사의 축도순으로 마쳤다.

2부 제33차총회 제1회 임시총회는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공동회장 이창희 목사의 기도,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총대원점명, 대표회장의 개회선언 등으로 회무에 들어갔으며, 이날 개회선언 토의에서 한기보험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을 수정 보완하여 통과시켰다.

이날 정관개정위원은 공동회장 임준재 목사(개혁합동총회장), 조성근 목사(개혁총회장), 김주상 목사(일만교회세무기운동본부장), 진공열 목사(중부지부회 회장), 최남규 목사(합동연합총회장), 이의근 목사(자유감리회감독), 원현영 목사(예장여성총회장), 이창희 목사(합동보수 성경총회장), 등이다.

포항교도소, ‘자연과 정 나누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고구마 싹을 따우면서 생명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알아

지난 5월 25일(금) 포항교도소(소장 성맹환)에서 전 수용자 대상으로 ‘자연과 정 나누기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자연과 정 나누기 프로그램’을 통해 1,500여명의 전체수용자들에게 개인별 고구마와 관찰노트를 각각 지급하고 재활용 PET병을 활용, 고구마 싹의 발아와 싹과 줄기의 성장과정에 대해 관찰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기반성과 올바른 인간성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지난 70일 동안 수용자들은 고구마를 수경재배를 하면서 처음에는 짜증으로 시작했지만 PET병에서 고구마 뿌리가 나고, 보라색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변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날 개최한 발표회에는 350여명의 수용자와 다수의 교정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문인협회 이사장 최부식 등 6명의 심사위원들이(학전초등학교 교감 김원자, 교정협의회장 강승걸, 장미라이온스클럽회장 정희정, 아름다운교백교회 이기학 목사) 사전심사를 통과한 25명에 대한 지난 3개월간 고구마의 생육상태, 관찰을 기록한 성장일기, 감상문 발표 내용을 종합 심사하여 대상, 최우수, 우



수, 장려상 등 푸짐한 시상을 하고, 발표자 전원에게도 컵라면 1박스를 전달하였다.

발표회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직접 생명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감동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1년 365일 계속 ‘자연과 정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생명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수용자 B씨는 고구마의 사람이 마치 치매로 고생하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고 하면서 싹을 키우기 위해 고구마가 온 어머니를 키우게 주고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이 80대의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자신을 키웠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고, 몇 칠전

에 집으로 전화를 해 어머니께 안부를 물으니 “누구세요”라고 하면서 알아보지 못할 때 너무나 맘이 아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이번 고구마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었고,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고, 다른 발표자는 ‘자연과 정 나누기’를 하면서 피해를 당한 분들께 무안한 죄송함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고백도 했다. 이날 포항교도소 성맹환 소장은 “앞으로도 제도화, 규격화된 맞춤형 교육․교화보다는 자발적 참여 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수용자들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부장 이기학 기자



희망나눔 콘서트 성황리 마쳐

OC교협, CTS기독교 TV공동주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이하 OC교협)와 CTS America(기독교TV)가 ‘미자립교회 돕기 기금마련’을 위해서 공동주최한 ‘2018 CTS 희망나눔콘서트’가 지난 19일 미주비전교회에서 열렸다. OC교협 회장 이서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교회가 연합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그

래서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담게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순서로 CTS문화사역팀의 CTS 현악중주단이 무대에 올라 ‘오 신실하신주’ 등의 3곡을 연주함으로 감동의 막이 올랐다. 이어서 이날 CTS여성합창단, CTS혼성합창단, CTS iDream 카이어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은혜로운 찬양 곡

들을 연주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선(전 원더걸스 메인 싱어)의 간증과 찬양은 콘서트의 최고의 절정과 감동을 더 했다.

소망나눔콘서트는 전통에 따라 모든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합창한 후, 민승기 목사(OC교협 이사

장, 갈보리새생명교회 담임)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CTS America 대표 백승국 목사는 “올해로 8회를 맞는 콘서트가 연례음악회로 자리 매김 됨을 함께 기뻐하며, 콘서트 수익금은 OC지역의 미자립교회들을 돕는 일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에피포드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목사) 제21회 예술상 시상식과 ‘에피포드 문화와 예술 제11집’ 출판기념식이 지난날 28일 LA로텍스호텔에서 열렸다.

수필가 이성숙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가운데 열린 1부 예배에서 이인미 시인이 대표기도를 한 후, 이태종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 선교사는 창세기 49장 22절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삶과 예술의 유사점은 고난의 장벽을 넘어서 성장과 아름다움의 꽃으로 피어 축복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한 후, 윤일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시상식에서는 백승철 목사가 “협회를 위해 기도와 협력해 주심을 감사하며, 작품의 화려함보다 진실성이 작품 심사의 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시인 오소미 박사가 축사를 한 뒤 △문학상 시 부문 본상은 신영 시인 △문학상 시 부문 신인상은 오석환 목사 △추천시 신인상은 김동수 시인이

제21회 에피포드 예술상 시상식

오석환 목사 시부문 신인상 수상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에피포드 제11집 출판기념회로 진행된 3부에서는 나잔진 목사와 강위덕 작곡가의 특별 축하순서 및 에피포드에 실린 제3회 세계한인기독인문학회 주최 독후감 공모 수상작인 우수상(박보라), 장려상(이정남, 김진해, 임보라)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동섭 시인(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축하케익 커팅으로 시작된 4부에서는 오소미 시인이 ‘당신께’, 석정희 시인이 ‘다시오신예수님’, 전은실 시인이 ‘무덤 진실 칼 그리고’, 오석환 시인이 ‘장마’ 등 회원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시낭송이 이어졌다. 신정현 기자

수도권지역 경기·여주 주택 · 대지 특별분양

전원주택단지 대지 주택 특별분양 이미 관심 속에 매매되고 있는 여주전원주택 은행대출 분양가의 70% 여주상수도개설, 전기, 통신(인터넷, 유선방송지중화



대지특별분양(70,680,000원)

(임야 33㎡당 40만원, 약660㎡ 매매)
현재 또는 2~3년 후에 건축가능 환영
대지(330㎡+도로(46㎡) 합계 376㎡)
3,3㎡당(62만원)376㎡=합계 70,680,000원



목조주택 특별분양

(2층 99㎡, 1억8500만원/청3, 화장실2, 거실, 다용도실)
(1층 72.6㎡, 1억 5500만원/청2, 화장실1, 거실, 다용도실)
주택 99㎡(1층 72.6㎡, 2층 26.4㎡)
대지 333㎡, 도로 46㎡ 합계 376㎡

교통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56.95KM)
- 대신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소요)
- 강남, 분당에서 대신C까지 45분소요)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C까지 45분소요)
- ◆ 여주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57km)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12분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20분
- (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소요

주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산 48번지)

전원주택홍보전화

010-5468-6574
010-3478-6574
http://cpj.kr
http://jtntv.kr에서
팝업창 광고 진행 중

분양의

02)8 5 4 - 1 3 5 5